

땅 끝까지의 복음의 증인되기를

총신 제7회, 목대원 제10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제1회 졸업감사예배



김양인 목사 총회장, 임종달 목사 목대원장, 박영찬 목사 중경총회장, 김용덕 목사 중경총회장, 강대진 목사 중경총회장, 윤기석 목사 목대원 사무국장, 조선남 목사 목대원 교수

원 대성전에서 드려져 땅 끝까지의 복음전파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교단 총회장 김양인 목사를 비롯 교수진 등 중진 목회자들과 성도, 축하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예배는 대학원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총회목대원 교수 강대진 목사의 대표기도, 조선남 목사의 성경봉독, 총회장 김양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롬 1:14-17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증인'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복음전파는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복음은 죄인을 구원을 이르게 하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준다'고 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땅 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고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당부하고 졸업생들을 축복했다.

이어 윤기석 목사의 학사보고, 목대원 원장 임종달 목사의 학위수여, 상장수여, 교단 중경총회장 박영찬 목사의 축사가 있었다. 박 목사는 축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주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은 죽

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졸업생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축복했다.

임종달 목사는 졸업생들에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축복했다.

계속해서 재학생 대표 김진숙 전도사의 송사, 졸업생 대표 양영민 전도사의 답사, 졸업생 대표 이종현 전도사는 학교에 기념품을 증정했다. 예배는 사회

자의 광고, 교단 중경총회장 김용덕 목사의 축도로 졸업감사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졸업생들은 그동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는 사역자

제66-8차 임원회

교단 제66-8차 임원회가 지난 12월 11일(월)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에서 열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기 위해 제반 사항들을 점검하고 교단발전과 신학교회의 부흥을 위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임기설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재무 탁정진 목사의 대표기도,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제22-20-21 말씀을 본문으로 한설교를 통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정조를 보면 성경에 언단 대로 말씀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다"라며 "전쟁, 기근, 지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에 대비해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교단과 임원회를 위해, 회원 회의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한 뒤 조용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교단 총회장 김양인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서기 차흥식 목사의 회원점령 후 김양인 목사의 개회선언이 있었으며총무 임기설 목사의 보고로 총회 목회대학원 2017년 하반기 계획학기 등의 내용을 보고했으며 재무 탁정진 목사의 수입보고, 교단발전기금 납입현황 보고, 회계 윤병하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는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기입 청원, 교역자 전출입 청원,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회폐쇄 청원, 지방회 내규 인준 건 등의 사안에 대해 결의했으며 기타사항으로 전국 여교역자국 송년예배, 2018년도 시무예배 및 제66-4회 실행위원회 점검 등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모든 순서를 마쳤다.



포토뉴스



교단 총회신학원(원장 임종달 목사)은 지난 12월 18일(월) 2017학년도 총회신학교 및 목대원 입학식 및 개강예배에 앞서 2층 회의실에서 교수회의를 갖고 2018학년도 1학기 수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비하고 풍성하며 영원한 사랑’

조용목 목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예수님의 탄생을 관련된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신비스러움과 감동을 더하여 줍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멸망될 운명에 처하여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 중에 압권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신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사실은 놀랍고 신비합니다. 인류는 모두 아담과 하와와 자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하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이 죄 사함을 얻고 의인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으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많으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여 대신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성삼위 하나님의 한 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한없이 신비로운 사랑”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풍성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인종, 남녀노소, 빈부귀천, 외모, 재능에 의한 제한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풍성하여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이 금지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죄인이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학식이나 힘이나 재능이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풍성한 사랑”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선고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 사탄이 뱀을 통하여 유혹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뱀은 사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고는 인류의 역사가 사탄과 그 추종 세력이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역사이며, 결국 사탄의 세력이 철저히 패배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여자를 꾀어 선악과를 막게 하고 아담도 막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오히려 여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게 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감지기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이래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 알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니 마침내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이 영원할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영원한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신비한 사랑, 지극히 풍성한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에서 열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기 위해 제반 사항들을 점검하고 교단발전과 신학교회의 부흥을 위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임기설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재무 탁정진 목사의 대표기도,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제22-20-21 말씀을 본문으로 한설교를 통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정조를 보면 성경에 언단 대로 말씀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다”라며 “전쟁, 기근, 지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에 대비해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교단과 임원회를 위해, 회원 회의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한 뒤 조용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8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 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타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 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 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영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③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④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⑥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⑦ 반영함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ASSEMBLIES OF GOD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한기연, 대표회장예 이동석 목사 선출

한기총과의 통합 추진 조속히 재개기로

(사)한국기독교연합회는 지난 12월 6일(수)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연회실에서 제7회 총회를 개최하고 대표회장예 이동석 목사, 상임회장에 권태진 목사를 각각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표회장예 단독 출마한 이동석 목사는 총대 전원 기립박수로 추대되었으며, 신설된 상임회장에 단독 임무보한 권태진 목사 역시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되었다.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이날 한국교회에 하나 되는데 앞장설 것과 한기연이 한국교회와 국가, 사회를 선도함으로써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연합기관으로 소임을 다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상임회장 권태진 목사는 대표회장을 잘 보좌하면서 한국교회에 반드시 하나 되는데 역할을 다하고 추락한 한국교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7회기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으며,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교회 연합운동에 매진할 것"을 선언하는 제7회 총회선언문을 박수로 채택했다.

임원은 대표회장예 서기에 김병근 목사(합동총신측 총회장), 부서기에 이주일 목사(대신 수호 측)를 선임했으며, 나머지 임원과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은 대표회장과 상임

회장, 서기, 사무총장에게 위임해 임원회에서 임명하기로 했다.

지난 6·3차 임시총회에서 법인명을 한국교회연합(한교연)에서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한기연은 신임원 조직을 마치는 대로 그동안 중단됐던 한기총과의 통합추진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으며, 통합추진위원회에는 상임회장 권태진 목사가 내정되었다.

국회 성탄트리 점등식 및 송년감사예배

국회 환경미화원에 쌀 207포대도 증정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회장 김진표 의원)가 지난 12월 6일(수) 오후 5시 국회 성탄트리 점등식 및 송년감사예배를 국회 제2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들과 2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드려졌다.

이날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기독교인회 회장)의 사회로 1부 송년감사예배와 2부 국회 성탄트리 점등식이 진행됐다. 특별기도 순서를 맡은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기독교인회 회장)은 "나라를 위하여 란 주제로,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독교인회 총무)은 국회와 교회를 위하여 란 주제로 한금기도는 장현일 목사(생령나무교회)가 모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에서 이경연 목사(인천 제2교회 담임)는 마 1:21-23 말씀을 본문으로 '임마누엘'이란 설교에서 함께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성도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

도가 우리 영육을 구원신 유일한 구주요 하나된 것을 고백하고 있다"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더러운 죄와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임마누엘이 함께하시는 시간이 바로 성탄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전했다.

예배 후 국회환경미화원에게 쌀 207포대

를 증정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2부 순서는 이동석 의원(국민의당 기독교인회 부회장의) 개회기도로 시작하여 국회 성가대와 인천제2교회 권사전양대의 따뜻한 개팔과 함께 국회 분수대에 화려한 빛을 환하게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예장연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팔순 감사예배 드려

남은 생애 복음전파사역에 헌신할 것

(사)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회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가 팔순을 맞아 지난 12월 8일(금) 오전 11시 서울 신촌 케이더빌 컨벤션 홀에서 팔순감사예배를 드리고 남은 생애 땅끝까지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1부 예배에는 예장연 상임회장 이광의



목사 사회로 상임회장 이성현 목사의 대표기도, 합동총연합 총회장 강경선 목사의 성경봉독, 예장개혁예신 총회장 김마리 목사의 찬양,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정성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성구 목사는 롬 11:36 말씀을 본문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기독교는 복음에 기초한다. 언제나 보수

신앙에 앞장서온 이광용 목사님이 남은 여생

도 보수신앙 증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부 축하시간은 예장보수합동 총무 김광재 목사의 약력 소개, 예장성서총회 총회장 김노아 목사·CTS기독교TV 이민우 부회장의 축사, 가족 인사, 케익커팅 순으로 이어졌으며, 예장연합장신총회장 송기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광용 목사는 총회신학연구원을 졸업한 후 미국 국제신학대학원 신학박사와 일본 아시아성서대학원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망우장로교회, 수색성은교회에서 목회사역을 감당했으며, 연합단체로는 한국성경공회 총무를 역임했으며, 현재 (사)예장연 이사장 겸 대표회장, 보수합동 총회장, (사)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 이사장, CTS기독교TV 주주 겸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강릉기독교연합회 제42회 회장에 이철 목사 선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분담금 심의는 신임원진에 일임



강릉시기독교연합회는 지난 12월 7일(목) 오전 10시에 강릉중앙감리교회에서 제42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철 목사(강릉중앙감리교회 담임)를 회장에, 사무총장에 김용철 목사(새능침례교회)를 선임했다.

이철 목사는 "강릉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연합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목원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원, 협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논산제일

교회와 당진교회 시무하고, 동부연회 감독역임, 현재 강릉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1부 개회예배는 김영철 목사(부회장)의 사회로 김용철 목사(부회장)가 기도하고 회장 최승현 목사(선일장로교회)가 행 20:17-24 말씀을 본문으로 '주 예수께 받은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 후에 오순환 목사(사무총장)의 광고에 이어 윤복수 목사(증경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임원 선출과 회칙 개정, 내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2018년 분담금 심의는 신임원진에 일임하여 익년 1월 정기월례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종교과세 혼란과 관련 단호한 입장 발표하기로

미래목회포럼 제14회 정기총회

미래목회포럼 제14회 정기총회가 지난 12월 14일(목) 오전 11시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려 신임 대표예 김봉준 목사를 선임하는 한편 종교과세에 대한 혼란과 관련 단호하면서도 정중한 입장발표를하기로 하는 등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대표 박경배 목사의 사회로 회원점명, 회산제책, 심상호 목사의 개회기도, 주서택 목사의 정기이사회 결의 및 정관개정 보고, 사업 감사 회계보고 후 14회 기 임원을 인준하고 직전대표 박경배 목사의 이임사, 인건보의 사항으로 종교과세와 관련된 정부당국의 혼란이기에 대해 단호하고 정중한 입장표명을하기로 결의하고 기타 안건들은 신임원진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곧바로 취임 및 위촉 감사예배로 이어졌다.

주서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이



동구 목사의 대표기도 임영문 목사의 성경봉독, 오정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오 목사는 갈 2:8-10 말씀을 본문으로 '천교의 악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가 사랑으로 말씀으로 하나되는데 내가 먼저 수고하고 헌신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참석자들

을 축복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한 후, '한국교회의 거룩성과 공공회성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 '사회통합과 핵도발 억지 및 북핵통일을 위해' 조희완 목사, 고형영 목사, 주대준 회장이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탈북동포들을 위한 송년의 밤행사 개최

(사)탈북동포지원연합, 장학금도 전달

(사)탈북동포지원연합(이사장 원종문 목사, 대표 강평도 회장)은 지난 12월 9일(토) 오후 5시 서울 구기동 소재 백련교동 중식당에서 탈북동포들을 위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위문공연과 함께 탈북민 자녀 중 8주 교육을 마친 학생들(초등학생 2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3명, 대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작은 통일을 이루어 가는 탈북동포들의 송년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열렸으며, 이날 탈북민 교육(87)를 마치는 교육생들과 탈북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품도 전달했다.

이사장 원종문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고



향을 떠나 자유를 찾아 남한에 정착한 자유이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하면서, "탈북민들은 통일의 중요한 역할을 할 소중한 존

재들"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통일의 작은 씨앗이 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탈북동포지원연합은 탈북민들의 권익 보호와 지원 등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이다.

손매남 박사, 코헨대 부총장에 취임

교계인사들 코헨대 위해 큰일 해줄 것 기대

코헨대학교 설립30주년 축하 및 손매남 박사의 본교 부총장 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12월 7일 오전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강당에서 드려졌다.

이날 감사예배는 코헨대학교 이사장 미셸 강 박사·설립총장 풀강 박사·전 총신대 총장 정성구 박사·전 성결대 총장 김영영 박사 등 석학 등 2백여 명의 많은 교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예배는 신재현 박사 사회로 남궁장수 박사의 대표기도, 윤일승 목사(세종병원 원목)의 성경봉독, 안진서 바이올리니스트(김천시립교향악단)의 연주, 서광식 시인(국제시낭송 협회장)의 축사, 코헨대 동문·경기대신리상담재학생의 찬양, 정성구 박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정성구 박사는 롬 11:36 말씀을 본문으로 한 '대회와 기독교세계관'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손매남 박사는 브랜드가 확실한 사람으로 뇌과학을 상담학에 접목시킨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다. 코헨대학교에서 탁월한 선택을 했다. 이번 코헨대학교 본교 부총장으로 선임된 손 박사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코헨대학교를 위해 큰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감사예배는 손 박사에 대한 이사장 미셸 강 박사의 임명패 증정, 박경준 박사(경기대 심리상담 교수)의 약력소개, 코헨상담대학원 동문회장 박종연 박사·장로회 총회장 강기원 박사(한기총 공동부회장)·고신대 신학대학원 동문회장 정성도 박사(신학교회)의 손매남 박사에 대한 축하패 증정 시간이 있었다.



3.1운동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추진

기념 재단창설 발기인 총회 및 창립총회 가져

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기념 재단창설 발기인 총회 및 창립총회가 지난 12월 6일 오후8시 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기념재단 창설준비위원회, 한인교류협력기구(W-KICA)가 주최한 가운데 국회한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는 장현일 목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의 사회로 송월주(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개회선언, 이선구 이사장(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이사장)의 한반도평화와 통일 민족화합을 위한기도, 김영진 장로(전 농림부장관)의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재단창설 추진위원장의 기념사, 소강석 목사(세메교회)의 '3.1운동 그 눈부시게 푸른 자유의 함성이어!'의 헌시, 아나연 국무총리의 격려사, 박주선 국회의원장의 축사에 이어 김혜영 교수(성악가)의 축가로

1부를 마무리했다. 이어 김영진 추진위원장이 임시의정장으로 회의를 진행, 조성구 사무총장의 성원보고와 추진위원장의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정광을 심의하여 사단법인으로 설립 신청을 하기로 하고 법인의 명칭을 (사)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기념재단으로 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으로 △이사장에는 김영진(전 농림부장관) △이사에는 박주선(국회부의장), 이주영(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유성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광운(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강석(세메교회), 이선구(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이사장), 유진현(케이세움건설 대표이사), 배태진(지구촌구호개발재단 사무총장), 이인석(이랜드서비스 대표)등 9명으로 했으며, △감사에는 장현일(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박종철(한국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을 선임하였다



성령으로 충만한 새로운 한 해 준비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유석구 목사)는 지난 12월 5일(화) 오전 11시 가평순복음교회(담임 조남영 목사)에서 송년회 및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재무 김정순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찬양인도와 총무 이봉기 목사(보리울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한상용 목사(순복음성령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유석구 목사(에바다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유 목사는 요 11:32-44 말씀을 본문으로

“나사로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의 영이 죽어있었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새해 2018년은 성령충만하여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는 새해를 맞이하자!”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김순형 목사(아침빛순복음교회)의 찬양기도와 증경회장 이은승 목사(은혜와승리교회)의 은혜로운 특송이 있었고 증경회장 윤정현 목사(송천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유석구 목사(에바다순복음교회)의 인도로 각종 회부 처리를 진행하였다. 이후 가평순복음교회(담임 조남영 목사)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웃놀이대화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 해 동안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유관영 목사)는 지난 12월 14일(목) 오전 11시 순복음미향교회(담임 서정희 목사)에서 월례회 및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최강옥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사회로 증경회장 최병진 목사(익산은혜와진리교회)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표재옥 목사(성령알곡교회)의 설교, 증경회장 김종호 목사(순정순복음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표 목사는 유 1:20-21 말씀을 본문으로 “내 영혼을 건축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서로의 영혼을 건축하며 목회를 세워가길



소망하며 올 한해도 수고한 교회마다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을 선포하였다.

2부 월례회는 회장 유관영 목사(순복음종은나무교회)의 사회로 각종 회부를 처리하고 송년회를 후원한 교회와 목사들에게 감사

의 마음을 전하였으며 모든 진행을 은혜 가운데 마쳤다.

이어 3부 교제의 시간에는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사우나로 이동해 서로 위로하며 은혜 속에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

인천지방회

인천 지방회(회장 이창모 목사)는 지난 12월 14일(목) 오전 11시 송도순복음교회(담임 반인홍 목사)에서 12월 송년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조성진 목사(종만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허드브라 목사(인천성문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반인홍 목사가 설교했다.

반 목사는 마 26:26-30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세가지 선물 (1)성 (2)물질 (3)예수님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복된 삶을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할 때에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된다고” 설교했다.

설교에 이어 나라와 민족, 교단, 지방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창모 회장(인천국제순복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이창모 목사의 진행으로 조성진 목사의 총무보고, 회계보고, 선

물교환을 마치고 송도순복음교회(담임 반인홍 목사)에서 제공한 풍성한 식사를 나누고 ‘스파시스’에서 온전유를 즐기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신동숙 목사)는 지난 12월 4일(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24-2번지에 소재한 평강교회(담임 정석현 목사)에서 월례회 및 송년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총무 장미자 목사(셀교회)의 사회로 찬송인도에 김진태 목사(선한열매교회), 기도예 최정음 목사(민음교회), 특송에는 사도일동이 울동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경봉독에는 부회장 박흥열 목사(오성사랑교회), 설교에는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오성사랑교회)로 28:9-10 말씀을 본문으로 “미움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전파함으로 참여



한 회원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

한글기도에 성백달 목사, 지방회장 신동숙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으며 바로 이어 회장 신동숙 목사의 진행으로 지방회 회무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나누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여러 다채로운 송년회 행사를 가졌는데, 교회로

돌아와 웃놀이를 하고 우송순서로 포상을 하여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인근 주변에 집집방으로 자리를 옮겨 피로를 풀고 한해 마지막 묵은 때를 모두 씻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서로서로 교제와 사랑을 나누면서 여러 다채로운 행사를 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였다.

강남지방회

서울강남지방회(회장 우성현 목사)는 지난 12월 3일(주일)-4일(토)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회원들은 6개월 전부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했으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펼친 곳이기 때문에 참으로 거룩한 땅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으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았다. 주님이 사랑하신 땅, 주님이 전 생애를 거쳐 사역하시며 밝으신 땅,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땅, 무덤에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흔적이 머무는 땅 우리 주님의 숨결이 배어있는 그곳이다. 물론 지금의 그 땅은 과거의 역사적인 흔적들만 남아 있을 뿐이며 예루살렘은 이천년을 지내오는 동안 시대의 변화를 크게 겪으면서 세계 3대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 있다.

4일 아침 첫째 날 이스트를 경유한 우리 비행기는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 착륙했다. 우리는 거룩한 땅 이스라엘 땅을 마침내 밟았다. 이스라엘에겐 약속의 땅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생활을 지나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들에게 참으로 큰 감동과 감격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우리도 그런 감동으로 그 땅을 밟았다.

가이사랴, 갈릴산, 브릿지, 가나, 나사렛을 중심으로 순례의 첫날을 보냈다. 발로 밟는 곳만이 아니라 버스의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모습이 소중하여서 비록 피곤했지만 눈에 담고 마음에 담고자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둘째 날이 시작되었고 우리 순례팀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으로 향했다. 골란고원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중동전쟁을 통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았다.

눈 덮인 험준한 산과 주변을 보았다. 갈릴리에 물을 흘려보내는 근원지를 보며 감탄했다. 갈릴리로 내려와 팔복교회와 고라신, 베드로의 집터를 본 후 이제 우리는 버스로 걸어가고 있었다. 태양은 서쪽에 기울고 있는 시간이었다. 갈릴리 주변과 어우러진 저녁노

성지기행-이스라엘 땅에서의 특별한 은혜



을이 참 아름다웠다. 주님도 그때 갈릴리에서 이런 노을을 보셨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다. 하늘에 너무나 소름 돋는 모습의 검은 용의 형상이 있었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두 눈과 눈동자까지 뚜렷했다. 즉시 사진에 담았다. “십자가가!”라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다른 한 편에서 빛나는 십자가형상을 하늘에서 보았다. 왼쪽의 용과 오른쪽의 십자가는 분명히 표적이었다. 그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적 전쟁에 대한 싸움이라고 여겼다. 우리는 이동하여 갈릴리 바다에서 성전예배를 드렸다. 예수님이 처음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의 부르심을 새롭게 하신 곳이다. 우



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한 분이 “십자가!”라고 말했다. 다시 표적이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십자가와는 달리 너무나 크고 선명하고 빛나는 십자가가 갈릴리 바다의 하늘에 펼쳐져 있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의 십자가,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어떤 일들을 기대하게 되었다.

다음날은 비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내렸다. 첫 일정으로 갈릴리 바다와 주변이 모두 내려다보이는 아벨산에 올랐다. 유대인의 여러 향방이 있었던 곳이며 이전에 아벨이 양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라고 했다. 그 산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았다. 버스를 타고 사마리아로 가는 중 또 하나의 무지개도 보았



다. 이 또한 언약의 상징인 표적이었다.

그날 가이사랴에서 우리는 한 소식을 들었다.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언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이스라엘 시각으로 오후 8시에 선언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인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언하면서 전 세계에 큰 변화의 불길기 당기어졌다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우리는 사마리아 산지와 그라심산에 예발산을 보고 아람의 우물에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얻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옛 도시 길을 걸으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셨던 길을 기도하며 올랐다. 회개하며 다시 새롭게 다짐하며 걸었다.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며 최후의 승리를 향해 그 길을 가리라는 결심을 했다. 마가의 다리방, 다윗왕의 기묘를 보았다.



통곡의 벽에서 드러지는 유대인들의 기도를 보았고 한동안 그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그토록 간절히 마음으로 드러진 기도는 이전에 없었을 것이다.

셋째 날이다. 우리는 아침 일찍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탄생기념교회를 보고 이후 감람산에 오르기 위해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산 위에 순천교회가 있었고 이곳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의 끝에 있었다.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시며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신 곳이다.

감람산에서 보니 예루살렘의 옛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다. 아제 사자의 분묘로 들어가서 비아돌로로사 길과 마가의 다리방, 통

▲ 너무나도 선명하고 빛나는 십자가가 갈릴리 바다의 하늘에 펼쳐졌다.

곡의 벽, 다윗의 기묘 등 전체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다. 감람산에서 주기도문 교회, 선지자들과 많은 묘들, 주님 눈물교회, 기드론 골짜기, 갓세마네 동산의 오래된 흔적들을 우리는 보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성찬식을 가졌다.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의 몸 안에 하나된 마음으로 그동안의 간증들을 나누었고 은혜는 깊어졌다.

마지막 날이다. 한국어로 돌아가는 날이다.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베들레헴 호텔에서 나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은 너무나 조용했다. 가장 혼잡한 시간대인데 거리는 한산했고 차량도 눈에 잘 띄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학교가 휴교령을 내렸고 상점들은 문을 닫았다. 저들은 트럼프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으로 인해 4일간 분노의 날로 정하여 그렇게 하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뉴스에서는 이미 충돌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들을 전했다. 유혈사태로 사망자 소식도 있었다. 예루살렘 거리도 너무나 조용하고 한산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떠나는데,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보였다. 이후, 이스라엘 안에서의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와 분쟁의 양상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성경대로 분쟁을 넘어 종교전쟁으로 이어져 세계는 더 치열한 영적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순례 팀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생긴다. 위험지역으로 이스라엘의 분이 닫힌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제야말로 더욱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절실히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게 되었다. 성서의 땅 이스라엘은 많은 순례자들이 다녀간다. 모든 순례자들이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곳이다. 진실로 그 땅을 밟으며 우리의 눈과 마음에 담은 은혜들은 특별했다.

모든 일정 속에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며 감사했다.

■ 생명의 말씀 ■



정의섭 목사

· 청주지방회장
· 한소망교회 담임

1.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지만 죄인 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죄를 없애기 위한 속죄제물이 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고통을 다 받으신 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게 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 예수님은 구원자 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난날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기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에서 구원하여 이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받는 즐거움입니다.

셋째,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평안함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21절을 같이 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롬 3:10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

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보면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겔 18:20)는 것이 원칙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죄인은 죽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강림하심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려고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어린 양이 되고 대속제물이 되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하는 일이나 다 죄뿐입니다. 그 죄값을 어떻게 다 치루겠습니까? 지옥이 야합입니다. 율법아래서 보면 다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동시에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은 합한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된 즐거움입니다.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그 세 번째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소망이 있는 평안함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듯,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유산을 주셨습니다.

롬 8:16-19의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하시나니 자녀이므로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 아니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정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약인들은 언제든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 할 때, 사도바울도 말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다. 그러나 장차 이 땅의 고난과는 비교 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세 가지입니다. 하늘나라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즐거움을 가진 하나님나라 백성, 근심과 걱정에서 구원 얻은 성도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은 천국의 문이 열리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천군천사와 함께 마중 나와 계십니다. 그곳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수고함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다름도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 우리들을 인도하시고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 된 기쁨이요, 하나님의 보호관음의 즐거움이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소망 있는 평안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이나 평안함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를 위해 살 때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종교계와 대화한다고 하면서도 그 와중에 지난 9월에는 각 종교 기관에 공문을 보내 기독교의 경우 8개 조항에 대한 과세 여부를 구별한다는 공문을 보냈었다.

그런데 그 내용대로 하게 된다면 종교인의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종교 단체에 과세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이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자, 정부가 이를 감안하여 최근에 ‘시행령’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종교 과세’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을 국무총리가 나서서 마치 종교계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미 이 정부는 그 동안 어떤 일정한 틀을 가지고 종교계를 이중적으로 대해왔던지, 아니면 ‘종교인 과세’와 ‘종교 과세’에 대한 구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아하다.

한국교회연론회

논평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종교인과세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종교인 소득세’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27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통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하 시행령)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 과세 대상을 분리하면서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한다’는 것과, 종교인 원천징수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 즉, 간이 세액표’를 마련하여 과세와 관련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또한, 부득이 세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도 ‘종교인소득 회계에 한정’한다는 것인데, 종교 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종교 활동에 지급한 것을 따로 기장(記帳)하면 그에 대한 것은 조사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종교인 납세 ‘예로사항 해소 창구’를 마련한다는 것과 종교인에 대한 근로와 자녀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시행 초기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잘 몰라 성실하게 신고하지 못할 경우에도 2년간은 가산세 부과를 유예한다는 것 등이었다. 정부에서는 이 ‘시행령’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다.

정부가 나름대로는 종교계의 목소리와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한 방법에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물론, 종교인에게 세금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주장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모습이지만 말이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12월 12일 제63회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언론과 시민 사회 등을 빛대면서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두 가지 주문을 하였다.

즉,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세부조사 배제원칙이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 일반의 눈

높이와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투명성을 고려하여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총리의 발언은 정부에서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그동안 종교계와 나눈 대화와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과세하려던 것을 부정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 총리의 발언 속에는 언론과 시민 단체를 끌어들이고 있지만 항간에서 떠드는 ‘특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 참으로 아이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종교계는 정부에 대하여 ‘특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제대로 시작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동 정

한정총 유중현 목사 취임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지난 12월 15일(금) 서울 서초구 방배동 예장 대신 총회회관에서 제36회 신임 대표회장 유중현 목사의 취임감사에 배를 드렸다. 한정총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표어로 정하고 한국교회와 장로교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반기문, 한동대에 성금 전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2월 11일(월) 지진 피해를 입은 한동대 시설물 복구를 위한 성금을 한동대(총장 장순홍)에 전달했다. 반기문 전 총장은 “한동대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한국, 그리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가장 뛰어난 학교로 더욱 성장해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총연, 강용희 대표회장 선출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 제13회 정기총회가 지난 12월 14일(목) 경기도 화성시 안천교회에서 열려 신임 이사장에 유영성 목사(안천교회), 대표회장장에 강용희 목사(하나 총회장)를 선출하고 형제의 연합된 힘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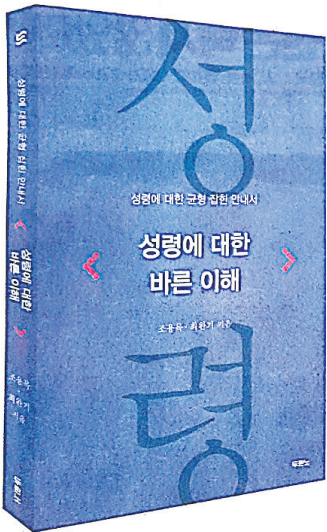
일산기독교연합 문성욱 목사 추대



일산기독교연합회가 제33차(통합 11차) 정기총회를 일산명성교회에서 갖고 수석 부회장 문성욱 목사를 신임회장으로 추대하는 등 새 임원을 선임했다. 총회에 앞서 개회예배는 문성욱 목사가 사회를 맡고 지명관 목사의 기도, 서성연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직전회장 신규태 목사가 연합하여 조화로 이루는 행복이란 설교를 전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인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진 채 은사우월주의, 변영신학으로 변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냐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자
조용묵 목사
최완기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종교인과세 ‘개정안에 대한 입장’

한국교회 주요연합기관들은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 당국의 확고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성명서

정부수립 후 처음 시행하는 종교인소득 과세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종교인소득과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종교계는 지난 6월부터 소통과 협의과정을 진행해 왔으며, 국회의 조정안까지 반영하여 지난 11월 30일자로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으로 예고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일정기간 예고 후, 12월 21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현재 종교계와 종교인들은 13일 오전에 열린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전국 17개광역시기독교연합회, 한국교회법학회)의 연석회의와 13일 오후에 열린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주재의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나온 반응대로 “현재 시행령이 종단 특수성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 정서와 법령 현실을 고려해 조세에 협력한다”는 원칙으로 존각을 다부며 날씨 준비에 여념이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2월 14일 까지의 예고기간 동안 종교계를 비롯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재검토 지시를 내려 종교계는 당혹스럽고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종교계가 수없이 만나 소통하며, 국

회의 조정 역할을 거쳐 어렵게 도달한 안을 종교계와 사전 협의도 없이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이며, 지난 6일 대통령의 초청으로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청와대 오찬을 다녀오며 건전한 협력을 다짐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어그úz을 놓는 몽나이다.

그동안 기독교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려하여 2년간 시행을 유보하고 충분히 보완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해 왔지만 정부가 이를 일축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정해 놓고 종교계와 협의를 진행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기재부는 물론 국회와의 조정을 거치고, 각 종교계와의 의견 수렴으로 만든 개정안까지 총리의 말 한마디로 원점으로 돌리다면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와 6만 교회와 목회자들은 종교인소득과세에 대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2018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소득과세는 ‘종교인의 개인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의 원칙이다. 따라서 종교인 개인소득이 아닌 종교 본연의 사역비에 해당하는 종교활동비에 비과세로 한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인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모법에 충실

한 것이다. 특히 종교활동비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상위법인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 종교인소득이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라면 세부조상도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의 개인의 소득에 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종교인에 대한 세부조상의 대상을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에 충실한 것이다.

셋째, 만일 시행령 개정안에 담은 위 두 가지 원칙을 훼손하거나,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종교의 존엄성에 상처주거나 모범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이 자행된다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심각한 정교갈등과 함께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기독교와 목회자들은 국민의 한사람이자 종교인으로서 남세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와 종교계는 과세당국과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위해 소통하며 준비할 것이다.

2017. 12. 14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76개 회원교단

(사)한국기독교연합 39개 회원교단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20개 회원교단

세계 최대 규모 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 세계 기록 경신

고척스카이돔에서 8,076명 오케스트라 기네스 신기록 도전 성공!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뮤직홀 음악연구소(대표 서동범)는 지난 12월 16일 오후 4시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8,076명의 오케스트라 연주자와 함께 ‘2017 월드기네스 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 단일 장소, 최대 인원 세계 최대 규모 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로 세계 기네스 기록 도전에 성공했다.

오늘 도전 성공은 연주 참가자 8,399명 중 8,076명을 공식 연주자로 인정했으며, 복음사가 “나를 받은 읍소서”를 7분 16초간 연주하여 기네스세계기록 경신 기준을 충족하였다.

기존 기네스 세계 공식 기록은 2013년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한 세계 최초 및 최대 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로 기록한 7,224명이었으며 기존보다 852명이 초과된 연주자가 참석했다.

특별히 이날 도전은 최고령 82세 참가자부터 6세의 최연소 어린이 참가자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참여하는 의미있는 도전이었다. 도전에 성공한 참가 연주자들은 성공과 함께 축사에서 세계기네스협회에 공인하는 인증서를 전원 수여 받았다.

2017 월드기네스 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는 2018년 2월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함께 다음 세대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CTS기독교TV와 ㈜뮤직홀 음악연구소가 공동 기획하고 주최했다. CTS기독교TV와 ㈜뮤직홀 음악연구소는 이번 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에서 도전자를 모집했고, 기네스 공식 기록 경신을 위해 필요한 도전자 수인 8,000명이 넘는 8,399명으로 세계 기록 도전에 성공한 것이다.

기네스 공식 기록 도전 심판 및 참관을 위해 영국 본사에서 파견된 심판관(솔레이 말로프)은 지난 2013년 최초의 호주 오케스트라 합동 연주회 도전 행사를 참관한 동일한 심판관으로 이번에 한국에서 준비하고 개최한 세계 최대 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에 대해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와 운영,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참가한 도전 연주자들의 기록 도전을 위한 열정과 적극성에 매우 놀랐다”며 “이 기록은 쉽게

경신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공동 기획한 CTS기독교TV는 “도전자 상당수가 전국 중소형 교회에서 작은 오케스트라에 동참하며 꿈을 키워온 청소년들”이라며 “이번 월드기네스 오케스트라 도전을 계기로 교회 오케스트라를 통해 지역 음악 발전과 음악적으로 소외된 다수 시민들에게 희망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뮤직홀 음악연구소는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를 매개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CTS기독교TV는 향후 기네스 신기록을 위한 도전 뿐만 아니라 매년 대규모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도전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목양
포커스

이인규 목사 // 교단 서기 역임, 안산시흥지방법회 중경회장, 아세아순복음교회 담임, 시흥시기독교연합회 중경회장,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수회 상임이사 교수회장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갈 6:2)

우선 기도를 선포하고 그 쪽에서 주도면밀하면
우리 측에서는 더 주도면밀하고 세부적으로 해보자고
소위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1년 전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지켜 보였고 무언가 도전하다 힘을 잃어버리고 탈진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들어보니 시흥의 초기 개발 시기인 38년 전 이곳에 정착 부흥되어 아담하게 건축되므로 후발 목회자들로부터 물 모델이 되어 부러움을 한 몸에 담았던 대야 정로교회는 지역의 상대적인 낙후로 재개발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재개발로 인하여 재도약의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부흥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재개발의 계획이 시간이 지난수록 지역은 슬럼화되고 성도들은 떠나고 오히려 재개발의 피해로 교회 침체를 겪으며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실상기상의 어려움은 재개발 조항 측과 시행사에서 종교 부지를 내주면 수익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철저한 경제 원칙에 입각하여 종교부지마저도 안주고 자기들만의 주도면밀한 방법으로 협상의 패를 놓치게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없게 언론을 차단하므로 상대방이 오히려 매달리게 하는 구조로 인하여 급기야는 담임 목사님이 심장 수술하는 지경까지 되었다 합니다.

자니고 보니 이런 상황은 쏜조자 될 수 없게 뒤에서 법무팀으로 하여금 진행하므로 다른 이해관계 건축주들과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발적 내지 자포자기의 길로 자연 해결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도지 건물 보상 감정이라고 해야 3군데 이상 감정을 하고 그중에서 최고가로 선정하나 서로 유착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주변 시세의 70%를 넘을 수 없는 보상 구조였습니다.

그 후이의 재가하여 재개발을 신청해도 그 연결고리 속에 속 타는 것은 건축주들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밤에 호소하여도 한번 정해진 보상가의 3%도 못 미치는 철저한 포기 게임입니다. 이에 답인 박 목사님은 여러 방법을 다하여 10년 동안 대항해 보았으나 한계가 왔고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 어떤 해결 방안이 없겠는지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부족하나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없는 성미에다가 만약에 회피한다면 에스더처럼 이파를 위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지체가 하나님의 일이며 확대된 목회 이기에 주님 지신 남은 십자가를 지는 일로 생각하면 앞뒤를 잘 수 있을 뿐더러 또한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 현장에 들어가 내가 완전히 녹아지고 맛을 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므로 뒤로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기도를 선포하고 그쪽에서 주도면밀하면 우리 측에서는 더 주도면밀하고 세부적으로 해보자고 소위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후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보면 그쪽의 대응은 이쪽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먼저 알고 나오니 달 같고 비워치기였습니다. 어떤 때는 협상의 테이블에 세 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에서 이성을 잃도록 유도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다리는 논치입니다. 앞에서는 협상하며 뒤로는 법무팀으로 하여금 빈틈없이 숨 막히게 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 파악을 잘 하도록 지혜 주시며 순간순간 막힘없이 할 말을 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나체 앞에서 매듭을 푸는 지혜의 열쇠를 주셨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11월 2일 안산 지법에서 변론의 기회가 있다 해서 가 보았습니다. 제대로 변론기회가 없고 유인물을 주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나와서 일다가 숨이 막혀 더 이상 일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망언자질 처 안에서 이제는 손을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사건의 현장에 중심에 계셨습니다. 마지막 수단을 강구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4주 동안 피 말리고 숨 막히는 순간을 지나고 1년 동안의 보상으로 최후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어디든지 이렇게 합의된 곳이 없다 하니 하나님께 감사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 마귀가 총출동하여 무덤 속에 예수를 장사 지내게 했어도 한 분 하나님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대야정로교회의 문제 앞에 전국을 확장하겠다고 사명을 다하는 순수한 모습을 보시고 승리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하면 보상금으로 세금 2억 내고 주변 상가 귀퉁이로 사라질 뻔했지만 마지막 맛지게 타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이전보다 더 좋은 건물을 구입하여 내년 2월이면 완전 리모델링하여 신현동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전 비용 및 세세 공과금 등 일체를 조항 측에서 부담하며 오히려 시행사에서 최신 리모델링으로 공시해 주기로 확약받아 멋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쓰임 받음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2017년 12월 5일

경기도 시흥에서 아세아순복음교회
이인규 목사드립니다

힐링네이처가 생산한 천연 전나무제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전나무에서 직접 추출한 에센셜 오일에 허브를 배합하여 만든 천연 전나무 제품입니다.

① 전나무 맑은호흡산책길 스프레이 (100ml)

•원재료 : 전나무오일, 청호오일, 선택리향오일, 유칼립투스오일, 페퍼민트오일, 라벤더오일, 티트리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아틀라스티어우드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사용법 : 가슴과 호흡이 답답할 때 가슴에 직접 분사하거나 공기중에 뿌려줍니다.

② 전나무 참편한근육마사지 스프레이 (100ml)

•원재료 : 전나무오일, 독활오일, 상지오일, 페퍼민트오일, 로즈마리오일, 라벤더오일, 유칼립투스오일, 두송열매오일, 꽃박하오일, 레몬그라스오일, 캐도미일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선택리향오일, 원터그린오일
•사용법 : 어깨, 종아리등 동치고 통증이 있는곳에 뿌린 후 마사지합니다. (운동전후/온전시/수험생/컴퓨터작업시)

③ 전나무 에센셜 스프레이 (100ml)

•원재료 : 전나무오일, 전나무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티어우드오일
•사용법 : 두피에 뿌린후 골고루 마사지합니다.

④ 전나무 퓨어 에센셜오일 (10ml)

전나무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100% 로써 마음과 몸을 정화합니다.
•원재료 : 전나무오일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⑤ 전나무 숲 블랜딩오일 (10ml)

전나무오일과 허브오일을 블랜딩하여 만든 천연오일입니다.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티어우드오일, 유칼립투스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떨어뜨려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⑥ 맑은호흡 캔들 (130g)

최고급 천연소이왁스에 전나무오일을 첨가하여 사용시 전나무숲길에 있는듯한 피톤치드를 선사합니다.
•원재료 : 소이왁스, 전나무오일

⑦ 전나무 오리자발 비누 (100g)

보습성이 뛰어난 코코넛오일과 세아버터베이스에 전나무오일과 전나무분말을 첨가하여 부드럽고 촉촉한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원재료 : 코코넛오일, 세아버터, 전나무오일, 전나무분말등

⑧ 전나무 센서티브 비누 (100g)

민감한 피부에 적합한 라벤더오일, 캐도미일꽃오일등을 첨가하여 순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캐도미일꽃오일, 시아버터, 마카데미아트오일등

⑨ 젤틀케어 립밤 (15ml)

입술이나 건조해지기 쉬운 신체 어느부위든지 빌러주어 부드러운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원재료 : 전나무오일, 호호바씨오일, 스위트아몬드오일,아보카도오일, 비즈왁스, 자몽껍질오일, 오렌지껍질오일등
•사용법 : 입술, 손, 발, 각질부문에 발라줍니다.

⑩ 전나무워터 (180ml)

전나무 오일에서 추출한 100% 전나무 워터입니다.
•원재료 : 전나무워터
•사용법 : 화장실, 부엌등 환풍이나 환기가 필요한곳에 뿌려줍니다.

☐ 힐링네이처의 이로운 전나무 제품은 화학물질을 일체 첨가하지 않은 순수 천연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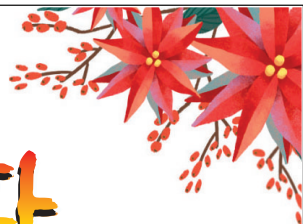
(주)힐링네이처농업회사법인 / 경영지원부 부장 권영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340-50 TEL. (033) 333-2018 FAX. (033) 334-2018 / www.healingnature.biz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서울서부지방회



회장 이광석 목사
순복음성리교회



총무 신동민 목사
시온영광교회

서울중부지방회



회장 김성규 목사
성도교회



총무 장복교 목사
은혜무른나무교회



저무 이진규 목사
예원교회

서울남서지방회



회장 이복선 목사
진리화사교회



저무 신은수 목사
반석교회

서울남동지방회



회장 우성현 목사
은혜로교회



부회장 정운기 목사
순복음가락교회



총무 이성돈 목사
꿈꾸는교회



서기 이현옥 목사
순복음사랑교회



저무·회계 이성호 목사
돌배기교회

서울중앙지방회



회장 김국영 목사
진리와사랑교회



총무 이가성 목사
새소망교회



회계 문정민 목사
소망교회

경기지방회



회장 최은규 목사
순복음선한목자교회



부회장 김병호 목사
순복음행복한교회



총무 전하네 목사
열린축복교회



서기 일현옥 목사
순복음이연교회



저무 안재봉 목사
순복음비전교회



회계 최금자 목사
순복음온누리교회

경기중앙지방회



회장 우석구 목사
여대리순복음교회



부회장 한성일 목사
순복음성령의교회



총무 이봉기 목사
보리들순복음교회



서기 신근철 목사
구리순복음교회



저무 김경순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회계 김순형 목사
아침빛교회

경기남지방회



회장 신동숙 목사
순복음임마누엘교회



부회장 박병열 목사
오성사교회



총무 정미자 목사
샘교회



서기 김효신 목사
순복음찬양교회



저무 서경옥 목사
복있는교회



회계 최정묵 목사
순복음민음교회



경기동부지방회



회장 김동문 목사
동산중앙교회



부회장 이성일 목사
천안교회



총무 최남순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저무 박수진 목사
사랑의능력교회

인천지방회



회장 이석호 목사
대구는혜와진리교회



부회장 최우현 목사
과천은혜와진리교회



총무 이도희 목사
전원은혜와진리교회



서기 경영희 목사
인양은혜와진리교회



저무 이재환 목사
인천은혜와진리교회



회계 윤형권 목사
광명은혜와진리교회

안산지방회



회장 이규아 목사
산성순복음교회



부회장 오선부 목사
순복음성령교회



총무·서기 윤애춘 목사
제일은사랑의교회



저무·회계 이경자 목사
민음교회

경기북지방회



회장 탁정민 목사
온선교회



부회장 이경진 목사
다시사랑교회



총무 오세준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서기 유준수 목사
향기문교회

영인지방회



회장 강경돈 목사
은혜소망교회



부회장 김인희 목사
순복음성경교회



총무 지용희 목사
새생명교회



저무 김동일 목사
기도하는교회



인산지방회



회장 박승호 목사
임의문교회



부회장 이재국 목사
순복음남자는교회



총무·저무 조영만 목사
일산별영교회



서기·회계 양호철 목사
빛과성령의교회

김포지방회



회장 이국서 목사
서인산복음교회



부회장 이장호 목사
은혜순복음교회



총무 주재훈 목사
주안교회



서기 이근수 목사
우리순복음교회



저무·회계 김복숙 목사
양곡진교회

인천지방회



회장 이종도 목사
인천국제순복음교회



총무·서기 조성진 목사
중앙교회



저무 김지철 목사
새소망순복음교회



회장 이한수 목사
사랑순복음교회

강원지방회



회장 전종국 목사
성자순복음교회



부회장 엄기소 목사
전원교회



총무 이성은 목사
진부제일교회



서기 정주영 목사
강릉순복음교회



회계 최경희 목사
성광순복음교회

강원서지방회



회장 박성우 목사
평강교회



부회장 임병채 목사
순복음민사협통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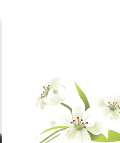
총무 김재두 목사
성산은혜교회



서기 서병석 목사
가나안영성교회



회계 김중배 목사
교업순복음교회



대전지방회



회장 엄기철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회장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총무 석인래 목사
하늘사랑교회



서기 차재현 목사
열매열호통교회

충서지방회



회장 차홍식 목사
아산순복음교회



부회장 안홍규 목사
한사랑교회



총무 김영관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저무 오수경 목사
순복음강자교회



회계 이인복 목사
순복음충주교회

충남지방회



회장 오승욱 목사
서인사복교회



부회장 노우석 목사
평안교회



총무 전홍식 목사
순복음침례교회는교회



서기 윤욱 목사
성산순복음교회



저무 김영희 목사
순복음대교회



회계 한전숙 목사
예수사랑교회

청주지방회



회장 정의섭 목사
한소망교회



부회장 김상훈 목사
청주성리교회



총무 오정석 목사
갈렐산순복음교회



서기 이영순 목사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충주지방회



회장 윤병하 목사
한우리교회



총무·저무 이범구 목사
순복음새생명교회



서기 진현배 목사
성곡순복음교회

충격지방회



회장 최홍식 목사
삼산순복음교회



부회장 김경준 목사
후성순복음교회



총무 김웅 목사
새희망교회



서기 신병설 목사
주시령순복음교회



저무 조재현 목사
청대교회



회계 민영식 목사
예광순복음교회

경남지방회



회장 황윤익 목사
은혜평화교회



부회장 윤성수 목사
진주은평교회



총무 과국성 목사
화목교회



서기 이성건 목사
진주별영교회



저무 전광호 목사
순복음열린문교회



회계 루성진 목사
진주순복음교회

경기도남지방회



회장 이성식 목사
섬입교회



부회장 권정식 목사
순복음늘푸른교회



총무 신홍섭 목사
한일대일교회



서기 성기찬 목사
동일산순복음교회



저무 윤득주 목사
북울산순복음교회



회계 황윤식 목사
연안순복음교회

대구경북지방회



회장 김영준 목사
갈렐리크스교회



부회장 도영수 목사
동해안순복음교회



총무 정철학 목사
태전사랑교회



회계 윤철희 목사
영북한순복음교회

부산지방회



회장 조병희 목사
기장순복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저무 조옥금 목사
순복음빛교회



회계 서희숙 목사
순복음비전교회

부산지방회



회장 홍현철 목사
은혜중앙교회



부회장 정영진 목사
김일리교회



총무 조정화 목사
순복음주님의교회



회계 박영옥 목사
순복음합중교회

광주지방회



회장 장영기 목사
순복음행림교회



부회장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총무 조은주 목사
순복음창종교회



서기 조갑수 목사
은혜교회



저무 박은진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회계 백영애 목사
순복음열림교회



회장 유광영 목사
순복음은나루교회



총무 최광호 목사
순복음제일교회



서기 이광호 목사
합리순복음교회



회계 박종석 목사
별업전원교회

전북지방회



회장 박상규 목사
정음순복음중앙교회



1부회장 홍종학 목사
부인순복음교회



2부회장 심혜원 목사
임마누엘수영관



총무 양희철 목사
창복순복음교회



서기 김훈배 목사
꿈이있는교회



저무·회계 박은석 목사
순복음심원교회

전라지방회



회장 최남성 목사
동강순복음교회



부회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총무 김영자 목사
순복음선교중앙교회



서기 유영근 목사
순복음광영교회

충남지방회



회장 김성호 목사
순복음삼강교회



부회장 서베드로 목사
목포시내선교회



총무 현기봉 목사
정계교회



서기 홍광희 목사
예전교회

제주지방회



회장 김건수 목사
제주한미교회



총무 이재홍 목사
순복음만남교회

총회직속지방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라스도 주시니라"(눅 2:10, 11)

2017학년도 2학기 종강예배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가 되자!

부산신학교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산신학교(학장 고영권 목사)는 지난 11월 22일 2017학년도 2학기 종강예배를 드리고 학사일정을 잘 마무리 하도록 하려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날 예배는 에히성 부산신학교 학장 고영권 목사의 사회로 교무처장 박용호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교단 신학국장 황용연 목사의 왕상 19:19-21 말씀을 본분으로 한 병환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황 목사는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의 방향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학생회장 전태연 학우의 헌금기도 후 신학국장 황용연 목사의 축도로 종강예배를 마친 뒤 단체 사진을 촬영하며 2017학년도 2학기 종강을 기념하고, 학장 고영권 목사를 비롯하여 한 학기 동안 강의로 수고한 모든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조병희 목사)는 지난 12월 14일(목) 은혜와평화교회(담임 한명정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각종 지방회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예배는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부산우리교회)의 사회로 김광수 목사(순복음야비교회)의 대표기도, 박정옥 목사(순복음새생명교회)의 성경봉독, 이상규 교수(부산고신대학교)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한국교회사 전공 교수인 이상규 교수는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로 사명 감당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주님 앞에 결단을 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증경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이어서 2부 월례회에

제30회 목회자기도회 개최... 4박 5일간 필리핀 단기선교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장영기 목사)는 지난 12월 5일(화) 오후 7시 순복음나주교회(담임 주



덕영 목사)에서 제30회 목회자기도회를 가졌다. 기도회를 갖기에 앞서 순복음나주교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영양가 높은 저녁식사를 함께하고 예배를 시작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서기 조갑수 목사의 사

회로 재부 박우진 목사의 기도, 부회장 최정식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2부 기도회는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한민국과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 서우리 교단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독감으로 입원한 총회장 김영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했다.

또한, 광주지방회 필리핀 단기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회장 장영기 목사 시모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기선교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장 목사를 위해 다함께 기도했다.

회장 장영기 목사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치고 순복음나주교회를 떠나는 발걸음들은

아쉬운 마음과 더불어 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들은 그야말로 하늘에 속한 자지들의 만남이었다.

광주지방회(회장 장영기 목사)는 지난 12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단기선교를 다녀왔다. 이번 단기선교는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회장 장영기 목사가 20여년 전부터 선교했던 곳이기도 하다. 11일 오전 8시, 7명의 회원들은 필리핀항공기를 타고 마닐라에 도착해 하루 전에 미리 가 있던 회장 장영기 목사와 이준성 선교사를 만났다.

오랜 시간을 거쳐 바기오에 도착한 일행은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선교사가 준비한



곳에서 여정을 풀고 이튿날 마운틴교회를 방문하였으며, 이어서 한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센터를 방문하고 저녁에는 심용제 선교사를 만나 선교비를 전달했다.

13일에는 아침 일찍 바기오를 떠나 마닐라로 향하는 길에 이용수 선교사가 사역하는 곳을 방문해 선교비를 전달하고, 최종삼 목사

가 사역하는 곳까지 약 10시간을 버스로 달려 수요예배를 드렸다. 14일에는 필리핀에서 모든 일정을 끝내고 결산을 하고, 15일 오후시에 필리핀항공기를 타고 인천에 도착하는 일정은 무척이나 힘이 들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마음으로 뿌듯함을 안고 돌아왔다.

제주지역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김건수 목사)는 지난 12월 17일(주일) 오후 5시 30분, 제주시 KAL호텔 1층 뷔페 룸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각 교회별로 근황보고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목회현장에서 겪었던 애환들을 나누고, 각 회원교회들의 기도제목들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한편,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와 새해 계획을 발표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제주지역이 역사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뭉친 폐쇄적 공동체여서 목회사역에 애로가 많지만,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여전히 영혼구령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음을 공감했고,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선교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토론하였다. 또한 제주지방회 합동 해외단기선교사역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들에게 120여 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복음의 빛을 갖고 지속적인

영혼구령의 열정을 이어가게 하는 동기부여를 해 주시고 뜻을 모았다. 모임 후에는 뷔페식당에서 애찬을 함께 나누고 제주한미교회로 자리를 옮겨 설교와 영혼관리에 대한 정보를 심도 있게 나누며 유익하고 뜻 깊은 송년모임의 시간을 마무리하였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탁정신 목사)는 지난 12월 16일(토) 소담 갈비카페에서 송년모임을 갖고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지방회장 탁정신 목사는 축복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믿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전하고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내가 붙들고 내가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함으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라는 모두가 될 것을 기원했다.



지방회원들은 각기 기도제목을 내어 놓고 함께 기도하며 더욱 사랑의 피로 하나 되

어 소망의 새로운 한해를 만들어갈 것을 축복했다.

성명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여성가족부 정책 강력 반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지난 12월 13일(수) 여성가족부의 성관련 정책과 관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행위에 대해 이를 규탄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중앙행정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성관련 기본 정책을 수립하면서, 그 기반을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관련 기본정책을 성평등에 두는 것은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당연히 양성평등기본법을 따라야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은 이 법의 제1조(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수립하고 있는 성평등 기반의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정면 위반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이지만, 성평등은 동성애를 포함하여 다양한 성정체성 간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교묘하게 용어를 바꾸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에 도입하려는 것은 국민들을 완전히 도외시키고 무시하는 것이기에 여성가족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강력한 분노를 모아서 다음과 같은 개선을 여성가족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기반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양성평등 기반으로 당장 수정하여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중요한 분구에 성평등이란 용어가 하나라도 들어가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둘째, 출산이 급감하여 인구절벽으로 인해 국가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일에 앞장서지 말기를 요구합니다.

셋째, 성평등을 조정하는 여러 정책들을 포기하고 진정한 양성평등과 여성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요구합니다.

넷째, 학교성교육표준안과 청소년성교육강사 육성 등을 통해 자라나는 차세대에게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포기하기를 요구합니다.

다섯째, 성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 조정하려는 계획을 당장 포기하고, 에이즈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성애자들이 회복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기를 요구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국가의 성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의 명칭을 현행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평등위원회로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성평등 기반의 기본계획을 포기하고, 여성가족부는 국가 미래와 건강한 가정을 위하고 여성 개발과 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 개발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본연의 양성평등 정책을 개발하고 동성애 논쟁에 앞장서지 말기를 촉구하며, 국민들의 열망을 앞에서도 잘못된 기본계획을 추진할 경우에는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태평양 지역 기독교 방송 대표, 한자리에!

“미디어 사역자들 통해 하나님 명령 완성되길”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독교 방송사 대표들이 ‘기독교 방송 미디어의 선교 사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에 모였다. 12월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 3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2017 ASIAN-PACIFIC CHRISTIAN BROADCASTERS SUMMIT>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CTS기독교TV의 주최로 열린 <2017 ASIAN-PACIFIC CHRISTIAN BROADCASTERS SUMMIT>(이하 ‘ACBS’)에는 인도네시아 LIGHT MEDIA의 웨슬리 파리팻 회장, 대만 GOOD TV의 수 원 에 부사장을 비롯해 대만의 Overseas Radio & TV Inc(ORTV), 인도네시아 PIAR TV, 파키스탄의 Issac TV, 말레이시아 CBN SEA & Korea, 홍콩 Creation TV 등의 기독교 방송사 대표들이 참가했다.

환영사를 전한 CTS기독교TV 감정철 회장은 “미국에서 1920년대 라디오를 통한 미디어 복음 전파가 시작되고 1960년대에는 TV 방송을 통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등 100년이 안된 방송을 통한 복음 전파 역사는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번 ‘2017 ACBS’는 아시아 미디어 사역 발전을 위한 첫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CTS는 이번 ACBS에

참여한 여러 나라와, 앞으로 참여할 여러 나라와 힘을 합쳐 콘텐츠를 공유하며 복음을 전할 것”이라며 “ACBS로 모인 모든 미디어 사역자들이 힘을 합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뜻을 모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회식에는 기독교계 안팎의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상진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미디어 사역에 크게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모인 데 대해 국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복음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사역이 크게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방송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CTS 사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CTS 공동대표이사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전계현 총회장은 축사를 통해 “2017 ACBS 개최를 축하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자들을 축복한다”며 “복음 사역이 나 다음세대 살리는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기술과 사회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디어가 고민해야 하는 이때에, 한국의 대표적 기독교 방송국인 CTS 주최로 열리는 ACBS는 그 해답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민국향토문학상 수상자 선정 아동문학가 김철수 장로

12월 22일 금호화순리조트에서 시상식

아동문학가 김철수 장로(69)가 2017 대한민국 향토문학상 수상후보자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한국지역문화인협회(이사장: 황하택 박사)가 제정 시상하는 대한민국향토문학상은 ‘지역 문학을 통해서 아시아로 세계로’를 지향하며 지난 2001년부터 전국지역문화인 교류대회를 매년 1회씩 대한민국 문학계가 부흥을 위해 전국의 문화인 500여 명을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광주·전남지역에서 개최해오고 있다.

또한, 동회는 <대한민국 향토문학상>을 제정 매년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향토작품을 창작한은 물론 지역 문화와 지역 문단을 위해 획기적인 활동을 펼쳐온 작가를 선정 시상을 해오고 있는데 2017 대한민국 향토문학상 수상자로 함평출생으로 40여 년간 지역 문화발전과 향토문학을 계승 발전시켜 온 아동문학가 김철수 장로를 선정 22일(금) 오후 2시 금호화순리조트 대회의실에서 시상기로 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아동문학가 김철수 장로는 함평읍수



호리 출생으로 함평초등학교(51회)와 광인중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가 효성고등학교와 서울기독대학교, 총회신학교, 필리핀 크리스찬신학대학원, 미국 서든클리포니아 신학대학원, 솔로몬대학교에서 각각 문학박사 학위와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 지난 1979년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모교인 함평광인중학교 교감과 교장 직무대리, 함평문화원 부원장과 원장 직무대리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함평읍 신기산길 55에 국내 최초의 사설 문학관인 셋별 문학관을 건립하고 사단법인 함평문인협회를 창립 초대회장을 역임했으며 순수아동문예지 월간 <아동문학>과 계간 <크리스찬문학>을 지난 '88'년부터 발간 30여 년 동안 아동문학가, 시인 등 총 900여 명을 발굴 양성해왔다.



기록에 대한 관리 절차와 항목을 준비할 것과 실제 회계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편 공공조세정책연구소는 종교인과세 시행 이후 발생할 교회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자료집을 만들어 제공하고 위 내용을 기초로 12월 14일과 18일 공

개 교육세미나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인 강의 요청으로 성탄절 다음 날인 12월 26일 16시에 논현동에 위치한 교육스튜디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등록문의는 02-6925-0256와 사이트 <https://ptpl.modoo.at> (이광형 실장 010-8629-904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8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8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7. 8. 31(목)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7. 9. 07(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7. 9. 21(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7. 8. 31(목)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18. 2. 5(월)~6(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파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김양인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엄기실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신장기증하며 따뜻한 연말연시 선물 전해”

40대 여성 윤은숙 씨, 11일 생면부지 환우를 위해 신장기증

연말연시를 맞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신장 하나를 기증하겠다는 있다는 이가 있다. (재)서울아산병원에서 윤은숙(윤산, 48세) 씨의 순수 신장기증 수술이 진행됐다는 따뜻한 소식을 전했다.

TV를 통해 혈액투석으로 힘든 투병생활을 하는 만성신부전 환우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윤 씨는 본인이 가진 것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중 신장기증을 결심하게 됐다.

윤 씨는 힘든 투병생활을 하는 만성신부전 환우들을 TV를 통해 접한 후, 지난 2009년 본부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 만성신부전 환우를 위해 바로 신장기증을 하고 싶었지만 직장생활과 두 자녀를 양육해야 했기에 10여 년 동안 마음에 담아두어야 했다. 그러던 중 올 해 4월, 라디오에서 생명의나눔에 대한 공익광고를 들으며 가슴 한 편에 담아두었던 신장기증을 실현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엄마처럼 타인과 나누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한 직장에서 18년 동안 재직할 정도로 성실한 윤 씨는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며 다양한 자격증을 땀다. 평소 새롭게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열정적인 성격으로 웃음요령 치료사 1급, 레크레이션 1급, 한식 조리사와 양식조리사, 포토샵 2급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했고 취득한 자격증으로 다양한 나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윤 씨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혼례식 진행 및 감장 담그는 봉사활동과 함께 레크레이션 자격증과 웃음요령 치료사 자격증으로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하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이러한 윤 씨의 모습을 보고 지난 두 자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나눔을 배우게 됐다. 윤 씨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나눔을 가르쳤고 두 자녀는 어머니의 모습을 많이 닮게 됐다. 윤 씨의 아들 임민혁(25세) 씨는 헌혈 은장상을 받을 만큼 생명의나눔에 적극적이다.

또한 윤 씨의 딸 임하나(26세) 씨 역시 어머니처럼 타인과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고 얘기하며 어머니의 신장기증을 동의하고 지지했다. 윤 씨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한 후 아이들에게도 항상 장기기증을 해야한다고 얘기했어요. 저로 인해 누군가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 수 있다면 생명을 나누고 싶어요. 아이들이 제 확고한 마



음을 알기에 흔쾌히 동의하고 지지해주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또한 윤 씨는 다가오는 신장기증 수술 후에는 사회복지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할 예정이다. 타인에 대한 나눔과 마음이 각별한 윤 씨는 12월 11일, 생면부지 환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술대에 올랐다. 윤 씨는 “신장이식을 받으시는 분의 얼굴을 한 번 본 적 없지만 저로 인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라는 소감을 전했다.

“22년 긴 투병생활 속에서 특별한 연말 선물을 받게 됐어요.”

윤 씨를 통해 새 생명을 선물 받게 된 이식인은 임 모 씨(62세, 서울)다. 임 씨는 두통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했다가 고혈압을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하던 중 지난 1994년 만성신부전을 진단 받았다.

그 후 약물치료를 받던 임 씨는 신장이 나빠져 1995년부터 혈액투석을 시작하게 됐다. 갑작스럽게 투석을 시작하며 약해진 몸과 마음으로 우울증 증상을 겪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신앙생활을 하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 왔다. 덕분에 22년 동안 특별한 합병증 없이 투석에 적응할 수 있었다. 긴 투병생활과 힘든 여건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주변 사람들의 기도와 물질적 후원으로 이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 씨는 “이번 신장기증 수술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소중한 선물이자 기회라고 생각해요.”라며 “생명을 선물해준 분께 감사하며 이식 후 건강을 회복해 더 열심히 살고 싶어요”라는 소감을 전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가족세트전도로 뜨겁게 달구다!

예하성 교단 경기지방회(회장 최은규 목사) 소속 전도부 주관으로 의정부 온누리순복음교회(담임 최금자 목사)에서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학장 박영수 목사)를 강사로 전도 콘퍼런스 12회 중 55차 세미나가 12월 12일 있었다. “가서 제자 삼으라”(마 28:19-20)는 말씀을 전하고 전도현장 동영상을 통하여 아파트, 비 오는 날 우산속 전도, 상가, 버스정류소, 새벽, 아침 출근 시간, 육교 위, 시장 등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나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전도 현장 즉석에서 맨손으로 아무 물품 없이 오직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초대교회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용했던(빌 2:10) 전도방법을 통하여 새롭게 도전받는 계기가 되었다.

즉석에서 바로 영접기도를 하고 교배까지 붙이며 사업장 실방에까지 연결되는 동영상은 보며 지방회 소속 참석 목회자 전원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강사 자신이 개척 당시 15만 원 월세에서 시작하여 2개월 14일 동안 604명을 전도하여 132명 등록 102명 출석 된 동영상은 보여주어 새롭게 개척하는 목회자들에게 신선한 도전장을 던져 주었다.

오늘 제감온도영하 10도 추운 날씨에 음식점여사장은 난생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며 공무원 준비 중인 딸과 저녁에베에 나오기로 하였다 거리에서 만난 아저씨 복덕방 사장님 중고등학교생 등 전도된 10명의 가족들이 환영의분이 열려져 교회로 나오도록 뜨겁게 기도했다.



박영수 목사는 한국교회 목회자 10만 명, 평신도 지도자 10만 명, 여교역자 1만 명 능력전도자들을 발굴하는 전도사역을 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전도실습 훈련장으로 벌써 회수가 144기이다.

3개월 12주 과정으로 강도 높은 현장전도 실습훈련을 성경을 토대로 이론을 체계적으로 세운 가족세트전도법, 양육교제, 심방전도 10분설교로 능력전도자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세계 미종족 선교사역을 방글라데시, 이집트,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신화생 선교 후원사업을 전개하며 실패타운부지 10만 평, 목거노인 5천 명 수용하는 실패타운을 준공하는 꿈과 희망을 갖고 한차례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수료자 1만 3천 명, 전국 12개 지역 55명의 강사진이 오늘도 전도현장에서 뜨겁게 하늘나라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

박영수 목사는 우리 교단의 지람이며 1년에 3천 명 이상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전도하는 능력 개인전도자로 기네스북 후보로 올라있다.

순복음새소망교회 오인근 목사(010-5317-9185) 경기지방회 전도부장/대한민국 자살예방센터 본부대표

동영상 :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사상과 문학 2017년도 신인상·작가회 총회

적박한 문학계에 새 바람 일으켜 줄 것 당부

격랑의 한해가 저물어가는 세월에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신인들을 새로이 발굴 배출하는 한편 작가회 총회를 개최하고 한 회기를 결산하는 모임이 문학선후배 동인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열렸다.

하나로선 사상과 문학(발행인 박영률 목사) 2017년도 신인상 및 작가회 총회가 지난 12월 18일(화) 오후 3시 신촌농협유통 하나로마트 12층 스키리운지에서 열려 시인, 시조시인, 수필가, 소설가 등 16명을 문단에 내놓았다.

이날 신인상 시상 및 작가회 총회는 김삼중 시인의 사회로 시작되어 박영률 시인의 내빈소개 및 개회사, 김봉근 시인과 작가회 회장 조운과 시인의 인사말씀, 심사위원장 유승우 박사의 심사평, 박영률 박사의 등단패 수여 순으로 이어졌다.

하나로선 사상과 문학 발행인 박영률 시인은 ‘하나로선 사상과 문학’을 통해 새로운 문인들을 발굴하고 등단한 문인들이 왕성한 작품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됨에 깊이 감사드리고 적박한 문학계에 새바람을 일으켜 줄 것을 당부하고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문학계의 선배, 동료 문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2부 순서로는 양혜관 시인의 색소폰 축주를 시작으로 한국문학 이사장 문효치 시인과 국제펜 한국본부 손혜일 시인, 전 한국문화비평가협회 이유훈



식 박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한국문인협회 김종상 고문의 격려사, 한국이동문학연구회 엄기원 대표의 축주, 이명희 박사, 김향기 시조시인, 최성대 시인의 축시, 전국 시낭송대회 대상 수상자 신유하 시인이 시낭송을 통해 참석자들의 가슴을 촉촉히 적셔 주었다.

특히 등단자 하이레, 고은혜 두등단 시인의 시낭

독 순서에서는 처음으로 함께하는 기쁨과 감격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감성을 쏟아내기도 했다.

마지막 순서로 등단자 대표로 수필가이며 사진작가인 최기만 님이 등단자 인사말을 통해 부족한 사람을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선배, 스승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세군 자선냄비, 한국교회와 함께 ‘나부터 이웃사랑’ 캠페인

한국구세군(사령관 김필수)은 한국교회 교단들과 함께 ‘나부터 이웃사랑’ 캠페인 선포식을 최근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필수 한국구세군 사령관, 최기학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유종국(예장대신), 김삼석(예장고신) 총회장과 전명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진영서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등 각 교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구세군 자선냄비 캠페인은 한국교회 22개 교단과 CBS 등이 올해부터 진행한 ‘나부터 캠페인’의 1호 사업의 일환으로 예장통합과 합동, 대신, 고신 총회를 비롯해 기독교대한감리회와 대한성공회, 기독교한국루터회와 기독교한국침례회 등 9개 교단과 대한간호사협회 등 4개 기관이 참여한다.

감리교회관 앞에서 매일 오후 12시부터 7시간 동

인의 자선냄비 활동을 교단별 1일 자원봉사 형식으로 진행한다.

김필수 사령관은 “한국교회가 이곳에서 자선냄비를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운동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이 나눔을 통해서 정말 소외된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옥금수(玉錦水)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문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히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옹골 활동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개척교회(힘드신 교회)에 전도용으로 보내드립니다. 간수 잘 빠진 천일염 20,000원에 판매합니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전국여교역자국 2017년 송년예배

“같은 사랑, 같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자!”(빌 2:2)
땅끝까지의 복음전파 위해 죽도록 충성 다짐!



사회
한순남 목사
여교역자국장

전국여교역자국(국장 한순남 목사)에서는 지난 12월 11일(월) 오후 1시 일산벤엘교회(담임 조영란 목사)에서 2017년 송년모임을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땅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요셉 목사와 김순중 목사, 일산 벤엘교회 정학균 집사와 벤엘악기팀의 찬양인도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교역자국장 한순남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차장 김바울 목사의 대표기도, 헬시바선교단(홍성화 선교사)의 특별공헌, 여교역자국 고분 정부용 목사(대림벤엘교회 당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행 2:1-4 말씀을 본문으로 ‘신령한 언어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신령한 언어인 방언기도로 마음의 안식을 얻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영혼의 불을 지피 타락한 이 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들이 다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설교에 이어 회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 및 민족복음화를 위해’, ‘종회와 신학교회를 위해’, ‘여교역자국과 섬기는 교회를 위해’ 한 마디 되어 뜨겁게 기도했다.

이어 자문 신동숙 목사의 격려사, 홍보부장 김순자 목사의 헌금기도, 벤엘악기팀의 헌금찬양, 여교역자국장 한순남 목사의 광고를 통해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할 것”을 당부했다. 고분 정부용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회원들은 예배 전 일산벤엘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송년감사예배 후에는 일산 레이커타운에 있는 볼링장으로 옮겨 각 지방회별로 볼링대회를 갖고 볼링 실력을 떠나 함께 아우라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한해 동안 배무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부족한 것은 돌아보아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로 더욱 알찬 새로운 한해를 맞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다짐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알찬 새해를 열어가기 위해 한미음되어 기도했다.



설교
정부용 목사
고분



격려사
신동숙 목사
자문



대표기도
김바울 목사
차장



헌금기도
김순자 목사
홍보부장



헬시바선교단의 찬양

벤엘악기팀의 찬양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목양 시사

장한일 목사 //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종교인 과세 일부 개정안의 이슈되는 쟁점 무엇이 문제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달 30일, 7개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초 종교인 소득 과세 관련하여 정부가 종교계에 제시한 과세 기준의 범위에 대해 경제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 보완 방안'을 통해 발표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차질 없는 시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종교지도자 간담회(7대 종교계 9개 종단), 종교계 방문 면담, 수시 실무협의, 납세지원 체계 구축(종교인 신고 안내 페이지 개설) 등 종교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일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몇 가지 짚어야 할 쟁점 사항이 존재한다.

첫째, 개정된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교세 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조정했다.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교세되는 종교인 소득에 추가했다.

단, 결정 지급 기준은 소속 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 단체의 의결 기구의 의결, 승인 등에 의해 결정된 사항만 해당된다.

* 종교활동비는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천주교 성무 활동비, 불교의 승려 수행 지원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직접한 절차에 의해 작성된 규약(정관 등)에 의거하여 종교 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목은 비교세로 분류된다.

하지만 개정 예고된 222조 2항을 기준으로 볼

때 "종교단체가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여전히 세무당국이 질문?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비를 종교인에게 근거 자료 없이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과세당국이 과세할 수 있는 종교인 소득의 과세대상 범위가 축소되었다고만 생각할 수 없다.

둘째, 개정된 소득세법 제222조 질문·조사 시에는 법제170조에 따라 질문·조사하는때에 종교활동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제출을 명할수 없다. 다만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질문·조사를 행하기 전에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우선 수정신고를 안내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

하지만 종교 활동과 관련된 지출 비용을 구분해서 기록·관리한 장부 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질문·조사를 발취할 수 있다.

그렇기에 증빙이나 근거자료가 없이 종교 활동비를 종교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세무당국이 종교단체 혹은 종교인을 상대로 질문·조사를 발취할 여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일 수 있다.

셋째, 개정된 소득세법 제41조에서 종교 단체 범위 규정도 확대했다.

여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 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형태의 종교단체도 포함된다. 더욱이 현재 종교인 범위 DB 구축 과정에는 종교단체에 대한 별도의 검증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여 본인 스스로 종교인이라 주장하면서 종교인 소득세를 부담할 경우에 반사회적인 종교단체의 난립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종교인 과세 일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4일까지이며 통합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기재부는 접수된 의견을 통해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9일 확정안을 공포한다.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각 교회의 이해 부족과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에 따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위한 정관과 재무회계에 따른 이해를 돕고자 공공과세정책연구소는 개신교의 정관과 재무회계 세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종교인 과세에 관한 공개강좌'를 진행한다.

공개 세미나는 1부와 2부 구성되며 1부 강좌는 교회의 공공정책전문가인 행정학 박사 장한일 원장의 "교회 정관 개정의 필요성 (담임목사 사례비와 목회활동비를 중심으로)", 2부 강좌는 종교인 과세 전문가인 행정학박사 김두수 회계사의 "교회 재무회계 매뉴얼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중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특별히 중형 교회 이상에서 교회 정관과 재무회계 세칙을 통하여 목회자 사례비와 목회 활동비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1차 교육 일정은 12월 14일(목) 16:00~21:00, 2차 교육일정은 12월 18일 (월) 16:00~21:00 목회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개 교육 강좌는 공공과세정책연구소 (<https://ptplmodaat.com>)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이번 진행되는 공개강좌는 기독교 목회자 대상으로 20명의 인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문의:이광희 실장 010-8829-9044, ptpl1153@ideahim.com)

다문화가족 100여 명 초청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참관

한기연...올림픽공식 열목도리, 화장품 등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나눠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지난 12월 14일(목) 다문화가족 100여 명을 초청해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이 열리는 평창 주경기장과 스키점프 경기장, 강릉 동계올림픽 홍보체험관 등 주요시설을 돌아보고 동계올림픽 D-57일이남은 기간에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국민적인 참여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기연은 이날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를 비롯한 회원교단 총회장 등 임원, 상임위원장과 직원 등 20여 명과 안산 다문화센터에 속한 중국몽골필리핀 등 다문화가족 100여 명을 초청해 버스 3대로 서울과 안산에서 각각 출발해 동계올림픽 주 경기장과 주요시설이 있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내 개폐회식스튜디오, 스키점프경기장 등을 돌아봤다.

이어 평창 황태마을에서 황태구이와 황태국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대관령 고령성결교회에서 개회에 배를 드리고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시설을 미리 참관해본 느낌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한기연은 참가한 다문화가족 모두에게 동계올림픽 조직위 공인 올림픽 기념 토틸목도리와 여성용 기초화장품세트, 한과선물 세트 등 푸짐한 선물을 전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잔치일 뿐 아니라 전 세계 지구촌 가족의 축제"라며 "한기연이 다문화가족 여러분을 특별히 초청하게 된 것은 우리가 비록 얼굴색과 국적인 달라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

이기 때문에 올림픽을 앞두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회장은 특히 "하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다문화가족 여러 분들을 올림픽 시설 참관 행사로 초대하게 된 것은 모두가 각 나라를 대표하는 평화의 대산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 다문화가족들은 동계올림픽 조직위 파견 직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홍보체험관을 방문하는 등 올림픽 시설 참관뿐 아니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위해 강릉서호 이쿠이리움과 한과마을에서 한과를 만드는 체험을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를 체험했으며, 각자가 만든 한과를 선물로 포장해 가져가는 세대를 즐거움을 만끽했다.

사 설

기쁨과 소망을 전하는 성탄절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로 인해 인생들에게 다가온 결과는 수고와 땀, 저주 그리고 죽음과 절망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인류가 지은 죄의 값인 사망을 목숨을 주심으로 속죄하셨다. 2017년 성탄을 맞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를 구원하시교자 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결과이다. 이 땅에서 소외되고, 연약하고, 희망의 불빛이 꺼져가는 어둠과 그늘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참된 희망과 생명의 빛으로 비자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이것이 예수님이 인류의 기쁨이신 이유이고 성탄의 기쁨 소식이다. 나아가 이렇게 성탄을 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널리 전하는 것 역시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며 즐거움이다.

성탄절을 알리는 반짝이는 장식과 선물들, 축하행사

‘양성평등’과 ‘성 평등’

여성가족부(정현백 장관)는 최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그동안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슬그머니 '성 평등'으로 고치는 작업에 들어갔다.

'양성평등'과 '성 평등'은 글자만 차이가 같지만 엄청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여가부가 여성들의 어떤 신장을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 간에 '평등'을 주장해 왔는데, 이것을 '성 평등'으로 바꾸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50여 가지의 사회학적 성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되므로 대단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는 현행 우리 헌법이 가진 '양성(남녀)에 대한 절대적 부정보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키는 것은 물론,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양성평등'이 '성 평등'으로 바뀌게 될 때, 수많은 사회적 혼란과 혼선이 있을 뻔하다. 우리 사회는 '남'과

와 자선행사들, 장식과 선물, 행사가 기쁨의 본질이 아니다. 성탄의 진정한 기쁨은 겸손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데 있다. 예수가 인류의 기쁨이시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혼란스럽다. 무릎 꿇고 성전 맨바닥에 앉아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듣다가 반세 기도하던 한국교회 초기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더욱 낮은 자세로 섬기고 배려하자. 이제는 많은 것들을 내려 놓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무거운 짐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자. 지나친 기득권은 포기하고, 너무 가진 것은 비우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기억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축한 한국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자.

종교개혁 500주년에 맞이하는 성탄절, 한국교회는 규모와 힘을 자랑하는 모습에서 낮고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번 성탄절은 화기와 나눔을 실천하고, 기쁨과 소망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

'여'로 2개의 생물학적 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 평등' 상황에서는, 약 50여 개의 사회학적 성을 갖게 되므로, 우리 사회는 뒤죽박죽의 사회로 돌변하고 말 것이다.

또 모든 성관계를 인정해야하므로,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 이루어지기 어려운 성 정체성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거기다 남녀의 결합에 의한 결혼만이 인정되던 것이, 다양한 성의 결합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막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가정도 해체되고, 정상적인 부부의 사랑을 통하여 얻어지고, 가정에서 키워져야 할 아이들이,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방법으로 얻어져, 가정의 의미는 상실되어져 갈 것이다.

여가부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변형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건강과 사회적 질서와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을 즉시 멈춰야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요한복음 3장 22-36절

요한의 물세례와 그리스도의 성령세례.
요 1:25-34 말씀에 요한이 물세례를 주는 이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한나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며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줄 알라 하였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한니라”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할 때 안드레와 베드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세례 요한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며, 땅에 서는 가장 큰 자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제자들 여호수아와 갈렙도 들어갔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와 물로 세례를 주는 자가 병행함으로 논쟁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 출생, 부모, 혈통으로부터 태어난 자, 육으로 낳아진 자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영적 출생인 거듭남은 위로부터 낳아진 자입니다. 사람이 혈통으로 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세례와 거듭남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는 영적출생이 아니라 안 됩니다.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세례는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예수님도 율법 아래, 유대나라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율법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갑니다. 세례요한이 아닌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내가 막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에 내가 막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며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전체를 주셨으니 내가 막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는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모두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물세례는 육신의 사람은 항상 물로 정결히 씻어야 합니다. 육에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영적 정결이 중요 합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성령 세례는 하늘의 차원입니다. 아블로는 학문이 충만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능통하지만 성령 세례는 알지 못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완전히 됩니다. 유대의 관원인 니고데모도 성령을 알지 못하여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육적에서 영적으로 거듭나야 새사람으로 변화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 생명(자연인)은 장사지냈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게 합니다. 신앙의 목적입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8년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

제4회 실행위원회

일시 2018년 1월 8일(월) 오전 11시(시무예배 및 신년하례)
(12시 점심식사, 13시 실행위원 회의)

장소 총회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 02)2675-5181~3

참석 실행위원(정책위원, 총회임원, 지방회장), 각 위원장, 각 국장, 증경지방회장
※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12월 22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김양인
총무 목사 엄기설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총회본부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http://www.aogk.org

http://agpgs.aogk.org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원서교부 : 2017년 12월 4일(월)부터
-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원서접수 : 2018년 1월 8일(월) ~ 2월 23일(금)
-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전형료 : 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 (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접수된 서류에 허위나 발견되면 합격을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홈페이지: www.agtc.or.kr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입학원서(소정양식)
- 담임목사 추천서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건강진단서(HIV포함)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원서교부 : 2017년 12월 4일(월)부터
- 원서접수 : 2018년 1월 8일(월) ~ 2월 23일(금)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전형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 (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출원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SSEMBLIES OF GOD